



제목	Turkey, Islam, Nationalism, and Modernity: A History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Yal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1. 8. 30.
저자	Carter Vaughn Findley
출판도시	New Haven
페이지수	544
ISBN 또는 ISSN	978-0300152616

내용 요약

『터키, 이슬람, 민족주의, 근대성: 역사』는 1789~2007년까지 오스만 제국과 터키의 역사에서 급진적, 세속적인 흐름과 보수적, 이슬람적인 경향 사이의 대립을 서술한 책이다. 저자 핀들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급진적 경향과 보수적 경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급진적인 경향은 개혁주의적인 정부 엘리트들에게서 형성되어 개인이 소유한 언론을 통해 확장되었다. 급진주의자들은 1908년 청년터키 혁명을 불러일으켰고, 1950년까지 제국을 지배하였다. 이들은 세속주의를 지속적인 신념체계로 만들었고, 여전히 강력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슬람 보수주의는 할리드(Mevlana Halid), 나르시(Said Nursi), 귤렌(Fethullah Gülen) 등 세 번에 걸친 이슬람 재생 운동의 추진력이 되었으나 1980년대까지 정부를 장악하지 못했다. 저자에 따르면, 세속적인 경향과 이슬람 종교적인 경향 사이의 차이는 어느 한 쪽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근대성을 다루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책은 총 7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은 주요 국내외적인 정치적 상황, 경제적 경향, 사회사, 인구통계학적 역사로 세분화되어 있다. 각 장이 그 시대의 저명한 작가들의 작품으로 상황을 재평가, 분석하여 종결짓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와 같은 형식으로 결론에 이르렀던 파묵(Orhan Pamuk)의 『눈』을 거론하고 있다. 저자는 오스만 제국이 ‘유럽의 병자’라는 인식과 최종적인 붕괴에도 불구하고 사상과 다양한 개혁의 역동성을 강조하였다. 오스만 제국 후기와 현대 터키의 역사,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부적인 내용과 포괄적인 설명을 담고 있는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